

北韓의 古典小說 收集 整理 研究 일고찰*

崔 雄 權**

50여 년 동안 北韓에서는 지속적으로 또 꾸준히 古典小說을 收集, 整理하여 왔고 나름대로의 研究를 진행하여 왔다. 民族文化 遺産을 收集하고 整理하고 研究하는 것을 國策으로 삼고서 추진해 왔으며 또 일정한 成果도 거두었다. 民族文化 遺産을 발굴, 整理하여 정확히 評價 처리하는 것은 民族의 歷史와 슬기를 빛내며 民族文化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기 위한 歷史的인 事業이며 文學藝術 發展의 합법칙적 過程을 구체적인 資料에 기초하여 科學的으로 깊이 있게 해명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적인 作業이다. 民族文化 遺産을 발굴, 收集하여 정확히 評價하지 않고서는 자기 民族의 優秀한 文化遺産을 올바르게 계승, 發展시킬 수 없으며 자기 나라의 文學과 藝術의 發展歷史도 과학적으로 정립 체계화할 수 없고 사람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도 높여 줄 수 없다.

1970年代에 들어서서는 文學學界의 力量을 총동원하여 이 事業을 힘입게 벌림으로써 全國 방방곡곡에 흩어져 빛을 보지 못하고 인멸되어 가던 수천수만의 貴重한 遺産들을 단 몇 해 사이에 발굴, 收集, 整理하여 정확히 評價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民族文化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우리 人民의 悠久한 歷史와 文化를 더욱 빛내일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나라 文學藝術 研究에 必要한 資料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조선어문》, 1995년 4호, p.12. <당의 현명한 영도 밑에 우리 나라 문학예술이 걸어난 자랑찬 50년>)

이 글은 광복 50주년에 즈음하여 이때까지의 文學遺産 事業을 총화하면서 내놓은 觀點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民族

* 이 글은 연변대학 최웅권교수가 숭실대학교 국문과 소재영교수의 정년을 기념하여 특별히 기고한 것임을 밝혀 둡니다.

** 中國·延邊大學校 교수

文化 遺産 발굴, 수집, 整理, 研究를 重視하여 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70년대에 들어서서부터 전반적인 研究와 收集, 整理가 활발히 進行되었다는 것이다. 확실히 70년대 이전 시기 적어도 60년대 초까지는 古典遺産 收集, 整理, 研究에서 그 實績이 극히 미미하였고 저조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만들어낸 교원참고용 《조선 문학사년대표》에서도 그 一端을 엿볼 수 있다. 이 연대표는 광복후부터 1956년 8월 15일까지의 것을 반영한 것인데 古典小說 部分만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15세기 :

1435-1493, 김시습(1435년(세종 17년 을묘) - 1493년), 《金鰲神話》 창작 추정

1470 - 1494 :

《高總角傳》, 《陳炮手傳》, 《閑良傳》, 《鄭相國傳》((창작 추정))

16세기 :

1543년, 언해본 《劉向 烈女傳》

1549-1587, 林梯 《서옥설》, 《花史》, 《원생몽유록》, 《愁城志》

17세기 :

1601년(宣祖 34년), 柳泳, 《雲英傳》 創作

1607년 李恒福, 《柳淵傳》 創作

1569-1618, 許筠, 《洪吉童傳》

1612-1669, 鄭泰齊, 《天君衍義》 創作

1637-1692, 金萬重, 《九雲夢》, 《謝氏南征記》

無名氏 創作, 《壬辰錄》, 《림경업전》, 《朴氏婦人傳》, 《田禹治傳》,
《蘇大成傳》, 《곽대룡전》, 《왕장군전》, 《장국진전》

18세기

1660-1720, 南益薰, 《玉樓夢》 創作

1753년 《王郎返魂傳》

1759년 金良器, 《少爲浦倡義錄》 編撰

1754-1766, 박지원, 《방경각의전》(馬駟傳, 閔翁傳, 兩班傳)

1780-1783, 박지원, 《許生傳》, 《虎叱》

1799 《홍보전》, 《장끼전》, 《토끼전》, 《섬동지전》, 《콩쥐팍쥐》,
《심청전》, 《장화홍련전》, 《춘향전》, 《翟成義傳》,

- 《五虎大將記》, 《三士誤入黃泉記》, 《西楚霸王記》, 《玉蓮夢》,
 《玉麟夢》, 《玉樓夢》, 《三子遠從記》, 《三韓拾遺》,
 《彰善感義錄》, 《東廂記》
- 1725-1800, 《華氏忠孝錄》, 《徐門忠孝錄》
- 1724-1802, 洪良浩, 《海東名將傳》 創作
- 1735-1815, 惠景宮洪氏, 《恨中漫錄》 創作
- 19세기
- 1801-1834, 鄭琦和, 《天君本紀》 創作
 李萬運, 《萬機要覽》 編撰
- 1812-1880, 신재효 판소리 여섯마당 : 《춘향가》, 《박타령》, 《토끼타령》,
 《변강쇠타령》, 《심청가》, 《적벽가》 창작
- 20세기
- 1900 《淑香傳》, 《淑英娘子傳》, 《白鶴扇傳》, 《金山寺夢遊錄》,
 《彩鳳感別曲》, 《玉丹春傳》, 《裴裨將傳》, 《蘇雲傳》,
 《李大鳳傳》, 《雙珠奇緣》, 《明珠奇緣》, 《明珠奇逢》, 《鳳凰琴》
- 1916 《燕岩集》 出版
1931. 12, 金台俊, 《朝鮮漢文學史》 出版
1931. 12, 金台俊, 《朝鮮小說史》 出版
- 광복 후
1949. 10, 신구현, 평론 : <朝鮮古代文學의 歷史的 考察>, 《역사 제 문제》 12호
- 1950 신구현, 평론 : <文學遺産 계승에 있어서 몇 가지 問題>
1954. 3, 윤세평, 《李朝文學의 사적 發展過程과 제 장르에 대한 고찰》 출판
 윤세평, 평론 : <18세기 實學派 思想과 朴燕岩의 문학>,
 《朝鮮文學》 3월호
1954. 4, 윤세평 주해, 《홍보전》 출판
1954. 5, 《장화홍련전》 출판
1954. 6, 윤세평 주해, 《洪吉童傳》 출판
1954. 8, 윤세평 주해, 《심청전》 출판
1954. 9, 최익한·홍기문 번역, 《燕岩作品選集》(燕岩朴趾源 原作) 출판
 윤세평, <우리 古典文學의 遺産계승문제>

1954. 12, 윤세평, 《朝鮮文學史》 15-19세기, 출판
신구현, 평론 : <燕岩 朴趾源의 美學思想에 대하여>,
《朝鮮文學》 12월호
1955. 2, 한효, 평론 : <古典의 옳은 評價와 옳은 계승>, 《朝鮮文學》 2월호
1955. 4, 김삼불 주해, 《토끼전·장끼전》 出版
1955. 5, 지봉문 주해, 《朴氏婦人傳》 출판
리상호 번역, 古典 《熱河日記》(상, 朴燕岩原作) 출판
1955. 7, 윤세평, 단행본 《우리 나라의 애국적 學者 朴燕岩 先生》
1955. 8, 김하명, 논문 <燕岩 朴趾源> 출판
윤세평 주해, 《謝氏南征記》 出版
1955. 10, 김재두 주해, 《조웅전》 出版
논문집 : 《朴燕岩 研究》 出版
1955. 12, 조령출 각색·상연, 희곡 : 《량반전》 (박연암 원작)
박종식, 평론 : <朴燕岩의 사실주의 文學>, 《朝鮮文學》 12월호
윤세평 주해, 《壬辰錄》 出版
1956. 1, 韓雪野, 평론 : <燕岩 朴趾源의 生涯와 活動>, 《朝鮮文學》 1월호
1956. 5, 김하명 주해, 古典短篇選集 : 《要路院夜話記》 出版
최익한·홍기문 번역, 《燕岩 朴趾源 選集》(박연암 원작), 출판
정학모·윤세평 주해, 《春香傳》 出版
김병도 번역, 《해동명장전》(홍량호 원작), 출판
1956. 6, 안함광, 《조선문학사 1900~》 출판
리응수, 《조선문학사 1-14세기》 출판
리갑기 편저, 《조선사화집》 출판
최익한 번역, 《재판 받는 쥐-서우설》(림제 원작)

이 연대표를 살펴보면 그때까지 古典小說 발굴, 수집, 整理가 극히 미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韓에서 90년대에 發表한 데 依하면 古典小說을 500여편이나 확보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모두 83편밖에 수록되지 않았다. 또 정밀한 研究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金鰲新話》의 대체적인 創作시기도 확정짓지 못했고, 《雲英傳》은 작자를 柳泳으로 推定해 버렸다. 또 古典小說의 시기확분 問題에서도 20세기까지 한정해 버리면서

이인직의 《혈의 루》가 창작되기 이전 作品들을 모두 古典小說로 보았다. 수량상에서 연구의 심도에서나 모두 초창기의 特點을 띠고 있다. 눈에 띄우는 것은 그런대로 적지 않은 古典小說 단행본들을 出版한 것이다. 이것이 광복후 1956년 6월 15일까지의 北韓에서의 古典小說 수집, 정리와 研究에 대한 소개이다. 그 이후에도 北韓에서는 계속 수집, 정리와 研究를 進行하여 왔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古典小說의 收集, 整理와 出版상황을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北韓에서는 古典小說 作品들을 단행본으로 계속 出版하는 외에 두 번 代表性있는 古典作品들을 選集으로 묶어 出版하였다. 北韓의 1959년 5월 7일자 《文學新聞》에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에서는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朝鮮古典文學選集》 33권을 出版하게 되는 바 이는 우리의 高貴한 文學遺産 발굴사업에서의 하나의 큰 功績 대거이다. 33권집으로는 《고가요집》(1), 《金萬重作品選集》(15), 《玉樓夢》(11, 17), 《리규보 作品선집》(7, 8), 《고대전기설화집》, 《가사선집》, 《한시선집》(상, 하), 《評論隨筆選集》, 《리제현 作品選集》, 《稗說作品選集》(상, 하), 《김시습·립제·권필 作品選集》, 《洪吉童傳·田禹治傳》, 《정철·박인로·윤선도 作品선집》, 《고대중세단편선집》. 《옥루몽》(상·하), 《춘향전·홍보전·심청전》, 《장화홍련전·두껍전》, 《림경업전·류충렬전》, 《기행문선집》, 《청구영언·해동가요·가곡원류》, 《장선감의록》, 《朴燕岩作品選集》(상·중·하), 《정다산작품선집》이다.

(《문학신문》, 1959년 5월 7일, 《고전문학선집》 33권이 발간된다.)

이것이 첫 번째로 文集을 발행한 예인데 포함된 古典小說 作品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리하여 이 기간에(1945-1960) 윤세평을 비롯한 우리 文藝學者들의 공동 노력에 의하여 풍부한 우리나라의 詩歌 遺産들과 《춘향전》, 《심청전》, 《홍보전》, 허균의 《홍길동전》, 김만중의 《謝氏南征記》, 《九雲夢》 등을 위시하여 19세기의 《褻裨將傳》, 《彩鳳感別曲》에 이르기까지 오랜 옛날부터 우리 人民에게 친숙한 古典國文小說들과 《조선속담집》, 《민요집》(1·2)을 비롯한 口傳文學作品集들, 그리고 《燕岩朴趾源選集》, 《李奎報作品選集》을 비롯한 漢文古典作品들이 1954-1959년간에만도 102종이나 出版되었으며 現在 우리의 풍부하고 방대한 民族古典作品들을 集大成한 《朝鮮古典文學選集》이 계속 간행되고 있다.

(《문학신문》, 1960년 10월 7일자, 《해방후 15년간 문학평론이 거둔 성과》)

여기에서의 《古典文學選集》이란 바로 33권집 《朝鮮古典文學選集》을 가리킨다. 두 번째로 선집을 묶어 출판한 것은 90권집 《朝鮮古典文學選集》이다.

……文藝科學 부분에서는 또한 文學藝術에 대한 근로자들의 소양과 지식수준, 감상능력을 높여주는데 실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선고대중세문학작품해설》(1, 2), 《외국문학해설집》등도 여러책 집필, 출판하고 상, 중, 하로 된 큰 규모의 《문학예술사전》도 내놓았으며 이밖에 전 90권으로 된 《조선고전문학선집》과 100권의 《조선현대문학선집》을 성과적으로 발행하였다.

(《조선어문》, 1995년 4호, p.10,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나라 문학예술이 걸어온 자랑찬 50년》)

이 90권집에서 이미 出版된 古典小說의 目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하진량문록》(12, 13), 문예출판사, 1989년, 윤석범 윤색, 리동운 주해
- 《옥린몽》(14, 15), 문예출판사, 1986년, 서문; 김하명, 역자, 오희복. ※《문학신문》 1990년 3월 2일자에 의하면 1989년도 문학부분 창작총화에서 우수 作品들에 대해 시상했는데 역자(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우수 번역상을 시상받았음.
- 《김태자전기》(16), 문예출판사·1990년, 윤색, 로은욱
- 《창선감의록》(17), 문예출판사, 1986년
- 《백학선전》(18), 문예출판사, 1988년, 김진태, 윤색·주해
- 《신유복전》(19), (신유복전, 정을선전), 문예출판사, 1987년, 리창유, 윤색, 김모식, 주해, 김춘택 서문.
- 《진장군전》(23), (진장군전·, 리대봉전· 어룡전), 문예출판사, 1988년, 리창유, 윤색, 조동욱 주해.
- 《현수문전》(24), 문예출판사, 1988년, 서문, 윤기덕
- 《류충렬전》(25), (류충렬전, 홍계월전), 문예출판사, 1990년, 최태권, 김옥련, 윤색, 주해, 현종호, 서문.
- 《림경업전》(39), (림경업전·몽유달천록·영영전),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2년, 역자, 김윤태
- 《황백호전》(22), (황백호전·황월선전·운영전) 문예출판사, 1987년, 윤색, 권택무.
- 《보심록》(40), 문예출판사, 1991년, 윤색, 김영철.
- 《춘향전》(41), 문예출판사, 1991년, 윤색 및 주해, 조령출.
- 《토끼전》(44), (금방울전·토끼전·장끼전·두껍전), 문예출판사, 1992년, 윤색 및 주해, 권택무·최옥희.
- 《란초재세기연록》(48), (란초재세기연록·천군연의),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년, 서문, 지정엽
- 《김시습작품집》(57), 문예출판사, 1990년, 역자, 류수·김주철.

《림계·권필작품집》(61), (원생몽유록·꽃력사·수성지·서옥설), 문예출판사, 1990년
 《김만중 작품집》(64), (사씨남정기·구운몽·정경부인 윤씨행장), 문예출판사, 1991년, 윤색, 림
 호권, 서문, 최인경.

90권집 《朝鮮古典文學選集》은 아직 계속 발간중이기에 그 전모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밖에도 北韓에서는 단행본의 形式으로 많은 古典小說 作品들을 出版하였다. 《春香傳》같은 作品은 여러 出版社에서 여러차례 출간을 하였으며 《사성기봉》, 《쌍천기봉》 같은 長篇小說도 단행본으로 出版되었다. 그리고 《아동문학문고》, 《청년문학문고》의 形式으로 古典小說들을 出版하기로 하고 大學生 참고용 教材로도 古典小說集을 여러차례 출간하였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古典小說解題》라는 이름을 붙여 古典小說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가장 代表作인 것은 《古典小說解題》 상, 중, 하로 된 삼권집이다. 이 책들은 문예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인데 저자는 조선문학 창작사 고전문학실로 되어 있고 1988년 4월 15일에 상권, 1991년 2월 15일에 중권, 1992년 7월 25일에 하권이 出版되었는데 편집은 박현균으로 되어있다. 먼저 이야기 줄거리를 요약하고 그 다음 思想內容을 말하고 藝術特性을 分析하고 마지막에 시대적 제한성이라 하여 몇마디 그 국한성을 지적하는 상투적인 수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언급한 古典小說 數量이 가장 많다.

여기에는 韓國에 아직 알려지지 않는 古典小說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겠다. 한 마디로 말하여 北韓의 學者들은 나름대로 古典小說들을 收集, 整理하였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民族文化遺産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北韓의 《文學新聞》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다.

遺産발굴 사업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하진량문록》, 《사성기봉》, 《쌍천기봉》, 《옥린몽》 등의 대장편 小說들과 반침략 애국주제의 《백학선전》, 《녀중호걸》, 《현수문전》, 《홍계월전》, 《왕제홍전》, 民族主義 意識을 고취한 《삼국리대장전》, 《신유복전》, 《남운전》, 예리한 사회·정치적 問題를 취급한 《황백호전》, 《옥포동기완록》 등의 長中篇小說들이 수많이 새롭게 발굴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대, 중세 文學史에서 《九雲夢》, 《玉樓夢》 등의 몇몇 長篇小說들과 金時習의 《金鰲神話》에 실린 短篇小說들을 포함하여 수십 편의 古典小說이 소개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文學史的으로 가치있는 長中篇小說만도 백수십 여편을 새로 발굴, 조사한 것은 참으로 民族文學遺産 發굴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스런 成果가 아닐 수 없다. (김칠환, 《古典文學의 찬란한 개화 발전》, 《文學新聞》1992년 5월 8일)

그들이 長中篇小說만 백수십편을 발견했다는데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資料를 제시하지 않아 모르겠다고 위에서 발굴했다고 예를 든 作品中에서도 대부분은 韓國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는 作品들이다. 기실 蘇在英教授의 《古小說通論》에서의 古小說 一覽表를 대조해보면 《쌍천기봉》, 《왕계홍전》, 《황백호전》, 《옥포동기완록》 네 편이 아직 韓國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 아래에 北韓에서 새로 발견하였다고 韓國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소재영 교수의 《古小說通論》中的 《古小說一覽表》를 근거로) 古典小說들을 代表性 있게 몇 편 거론해 보려고 한다. 제일 처음 언급할 作品集은 《花夢集》이다. 이 作品集은 金春澤 교수의 《朝鮮古典小說史研究》가 韓國에 소개되면서부터이다. 그는 자기의 著作에서 《花夢集》에 대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朝鮮語文》에 論文을 發表하여 《花夢集》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소개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 中世文學에 대한 歷史記錄들과 도서해제들에 이 책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文集은 우리나라에 保存되어 있는 유일한 수사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춘택, 《中世小說作品集 <花夢集>에 대하여》, 《朝鮮語文》, 1986년 2호)

우선 북한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唯一本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 수사본은 漢文(초서)으로 씌여졌는데 여기에는 이미 세상에 알려진 小說들인 《원생몽유록》, 《운영전》, 《주생전》과 함께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小說들인 《영영전(英英傳)》, 《동선의 노래(洞仙傳)》, 《몽유달천록(夢遊達川錄)》, 《피생명몽록(皮生冥夢錄)》, 《금화령회(金華靈會)》, 《강로전(姜虜傳)》등 모두 9편의 漢文小說들이 실려 있다. 《화몽집》의 편집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앞머리에 《략거기개 시 천계 6.....》(略舉基槩 時 天啓 六)(천계 6년 즉 1626년에 作品들을 추려서 적어 둔다는 뜻)이라는 記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늦어도 1626년부터 편집되어 記錄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천계년호는 7년까지 있었으므로 《6》자 이후 글자들이 탈락되었으나 천계 6년이라는 것은 明白하다.”(김춘택, 《중세소설 작품집 <화몽집>에 대하여》, 《조선어문》, 1986년 2호)

기실 《화몽집》에 대해서는 50년대에 이미 언급이 있었다. “1959년 5월 29일 과학원 회의실에서는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주최로 學術報告會가 進行되었다.……고전계승의 한 측면으로서 풍자시인 석주 권필과 作品集인 《화몽집》의 研究에 대한 報告가 있었다. 《화몽집》에 대하여 김일성종합대학어문학부 류수동지가 報告하였다. 그는 자기 報告의 서두에서 《화몽집》은 그리 알려지지 않은 作品集으로서 文學史上 重要한 意義가 있다고 하면서

그에 수록된 《몽유달천록》, 《금화령회록》, 《동선전》, 《운영전》, 《영영전》등 10편의 作品들을 分析, 報告하면서 이는 《金鰲新話》와 비슷하게 傳奇的 측면이 많다고 하였다. (《학계소식》, 《조선어문》, 1959년 4호) 여기에서 꼼꼼히 살펴보면 《화몽집》을 9편이 아닌 10편이라고 한 점이라든가 또 김춘택교수는 《금화령회》라고 하였는데 류수는 《금화령회록》이라고 하면서 《록》자를 덧붙인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다. 김춘택교수가 9편의 作品의 이름을 다 열거한 것을 보면 9편이 맞을 것 같다. 《화몽집》이 또 언급된 것은 《조선고전문학선집》(39권 《림경업전》)에서이다. 김운세라는 학자가 서문을 썼는데 김춘택교수의 主張과 똑 같은 견해를 펴려고 있다. “《조선고전문학선집》 39권에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림경업전》, 《몽유달천록》, 《영영전》 등 세편의 中篇小說에 해당하는 古典作品을 번역하여 原文과 함께 편집하였다. 이 作品들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것은 漢文으로 씌여졌던 사정과 그러나 이 作品들은 小說의 主題思想의 견지에서 보나 또 形象수준으로 보아 우리나라 中世小說文學의 發展에 重要な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귀중한 작품들이다. ……《몽유달천록》과 《영영전》은 小說集 《화몽집》에 수록되고 있다.”(김운세, 《조선고전문학선집》(39), 《림경업전》 서문, 문학예술출판사, 1992) 北韓學者들이 主張하는 9편가운데서 韓國에 알려지지 않은 作品은 《姜虜傳》과 《金華靈會錄》이다. 北韓에서도 이 두 作品을 아직까지 原文으로 發表하지 않았다. 다만 《古典小說해제》에서 이 두 作品을 다루고 있다. “古典小說 《姜姜虜》전은 漢文小說集 《화몽집》 안에 들어 있는 作品으로서 16-17세기에 산 반동적인 양반관료 강홍립에 대한 傳記小說이다. ……《화몽집》의 편집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편집년대는 그 안에 실린 作品들의 內容으로 보아 17세기 전반기경이라고 볼 수 있다. 《화몽집》 안에 실린 作品의 일부는 作家가 알려져 있고 일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 《姜虜傳》은 作家가 알려져 있지 않는 作品이다.”(《古典小說해제》(1), 문예출판사, 1988년, p.25) 이렇게 서두에서 간략하게 《姜虜傳》의 출처를 밝힌 다음 當時의 國內의 政世를 分析하고 作品의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그 思想內容에 대해서 언급했다. 마지막에는 이 作品의 文學史的 意義에 대해서 언급했다. “小說 《姜虜傳》은 이와 같은 제한성이 있으나 부정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그의 수치스러운 일생과 그 말로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深刻한 教훈을 주었다는 의미에서 일정한 意義를 가진다. 小說은 또한 當時의 복잡한 國內의 政世와 歷史的 事實을 文學作品을 통하여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였다는 點에서도 意義를 가진다.”(《古典小說해제》(1), 문예출판사, 1988년, p.33) 原文을 검토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最近에는 박희명교수가 韓國에서도 《姜虜傳》의 異本들을 발굴해 냈다고 主張하고 있다.

現在 《姜虜傳》의 이본으로는 國編本과 화몽집본 및 葵窓本의 세 가지가 있는 셈이다. 이 중 규창본은 諺譯本을 다시 漢譯한 것으로서 原作과는 거리가 멀며, 原作의 면모를 보여 주는 이본은 國編本과 화몽집본이다.

(박희병, 《17세기초의 崇明排胡論과 부정적 小說主人公의 등장》, 《韓國古典小說과 敘事文學》, 集文堂, 1988년, p.37)

박희병교수가 주장하는 原作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國編本이 行書와 楷書로 쓰여졌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北韓의 《화몽집》은 草書로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확실히 서로 다른 異本이라고 긍정할 수 있다. 또 박희병교수는 작가까지 고증해 냈는데 권칙을 原作者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강로전》 研究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金華靈會錄》은 《古典小說해제》에서 《금산사몽유록》으로 소개되고 있다. “古典小說 《금산사몽유록》은 漢文小說로서 한 선비가 꿈속에서 中國의 역대 人物들이 모여 연회를 벌리고 있는 것을 구경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소설은 여러 가지 異本을 가지고 있다. 한문수사본으로 《금산몽유록》, 《금화산몽유록》이 있으며 《화몽집》안에서는 《金華靈會錄》이라는 제목으로 이 作品이 실려있다. 그리고 國文으로 번역된 《금산사몽유록》이 있다. 이 소설은 17세기 중엽에 편집된 것으로 인정되는 漢文小說集 《화몽집》안에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創作年代는 17세기 전반기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는 알려져 있지 않다.”(《古典小說解題》(1), 문예출판사, 1988년, p.83) 소설의 思想內容과 그 文學史的 意義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作家는 作品에서 지난날의 歷史를 통하여 當時의 封建現實을 批判하고 當代의 봉건통치배들도 옛날의 어진 임금들처럼 百姓들을 사랑하며 간산을 멀리하고 어진 신하를 널리 등용해야 한다는 思想을 主張한 것으로 보이나 옛날과 當代의 現實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였으며 不合理한 封建現實을 타개할 아무런 방도도 제기하지 못하였다. …… 小說 《금산사몽유록》은 이 시기 《몽유록》 형식의 小說 發展情形을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意義를 가진다.”(《古典小說解題》(1), 문예출판사, 1988년, p.87)

북한에서 또 새롭게 발굴했다는 소설로는 《란초제세기연록(蘭焦在世奇緣錄)》이 있다. “古典小說 《란초제세기연록》과 古典依仁小說 《天君演義》는 우리나라 中世小說 가운데서 비교적 思想 藝術性이 높은 作品으로 꼽히는 小說들이다. 《란초제세기연록》은 古典文學遺産을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받들고 전국적 범위에서 古典小說 資料들을 收集, 整理하는 과정에 새로 찾아 낸 作品이다. 작품은 作家가 밝혀져 있지 않는 國文小說로서 現在 세책으로 된 필사본이 전한다. 創作年代 역시 알려져 있지 않으나 內容으로 보아 18세기 以前에 創作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설은 옛 中國의 古典長篇 敘事詩

《공작행》(일명 《공작동남비》)의 불행한 두 남녀 주인공-관지와 초중경이 다시 人間 세상에 태어나 전세의 限을 풀고 복록을 누리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 《란초제세기연록》이라는 작품의 題目도 관지와 초중경이 다시 태어나 만나는 奇異한 人緣에 대한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지정엽, 《조선고전문학선집》(48), 《蘭焦在世奇緣錄》,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년, p.1) 유감스러운 것은 原文으로 出版되지 않은 點이다. 때문에 그 作者나 創作年代, 진위 등에 대해 正밀 研究를 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古典小說 《蘭焦在世奇緣錄》과 古典 擬人小說 《天君演義》를 윤색함에 있어서는 原作의 기본 인물선과 사건선을 부각하는 方向에서 일부 內用을 다듬고 필요없는 것은 없애거나 약화시키었다.”(同上書) 韓國의 曹喜雄教授는 이 小說의 서지학적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1956년에 개척되었던 ‘一石李熙昇先生還甲記念圖書展示會’ 때 李崇寧 소장필사본 《蘭蕉在世錄》1책이 展示되었던 일이 있고, 또 韓國 精神文化研究院에도 필사본 《난초지세록》(p.78-88) 1책 84장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이제껏 전연 거론된 적이 없었던 作品으로, 역시 《古典小說해제》에 소개되어 있다. 《조선고전문학선집》(48) 해제 및 《古典小說해제》의 기술된 바에 의하면, 이 作品은 北韓에서 古典文學 遺産을 체계적으로 收集, 整理하는 過程에서 새로 찾아 낸 作品으로, 전 3책으로 되어 있으며, 內容으로 보아 대략 18세기 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옛 中國의 古典長篇敘事詩 《孔雀行》(일명 《孔雀東南飛》)의 불행한 두 남녀 주인공, 즉 난지와 초중경이 다시 人間 세상에 태어나 전세의 限을 풀고 복록을 누리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고 한다. 어쩌면 이 作品은 번역소설일지도 모르겠다.”(曹喜雄, 《北韓所在 古典小說書目 檢討》, 《韓國古典小說과 敘事文學》(上), 集文堂, 1998년, p.89) 北韓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세책이고 南韓 소장본은 1책으로 되어 있다. 또 번역본일 것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는데 原文을 正밀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대장편소설 《쌍천기봉》도 北韓에서 새롭게 발굴해 냈다는 作品이다. “古典小說 《쌍천기봉》(한 쌍의 팔목걸이의 기이한 상봉)은 板刻本으로 傳해지고 있는 作品으로서 그 內容과 形式, 언어구조로 보아 18세기에 創作된 것으로 추정되며 作家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小說은 우리나라 古典小說 일반이 흔히 그러하듯이 봉건통치배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무대로 삼고 있다. 이 小說은 우리 나라 中世紀 文學에서 이른바 奇緣奇逢(기이한 인연과 기이한 상봉) 小說의 代表的인 作品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小說은 우리 나라 中世紀 특히 李朝封建社會의 지배적인 思想潮流였던 儒敎思想의 觀點과 立場에서 當時 封建君主의 신임을 받던 리현 일가의 5대에 걸치는 근 100년간의 歷史를 가족사적인 形式으로 그리고 있다.”(《쌍천기봉》(서문), 리창유, 문예출판사, 1986년, p.1) 역시 서지학적인 사항들을 正밀하게 밝히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이 밖에도 北韓에서 가장 무수한 擬人小說의 하나로 손꼽고 있는 《옥포동기완록》이 있다. “《옥포동기완록》은 두꺼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中世 擬人小說中에서 예술성이 가장 높은 作品이라고 볼 수 있다. 漢文 수사본으로 전해오는 이 長篇小說은 最近에 調査, 발굴되었다. 作家와 創作年代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內容과 形象手法으로 보아 18세기말 19세기초에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古典小說해제》(하), 《옥포동기완록》, 도서출판 보고사, 1997년, p.84) 역시 서지학적인 고증은 극히 미미하다. 다른 作品들과의 比較 속에서 그 創作年代를 밝히려 하고 있다. “《옥포동기완록》에는 《두껍전》에서와 같이 두꺼비와 여우의 대결뿐 아니라 두꺼비와 원숭이, 두꺼비와 토끼의 문답이 들어 있으며 《섬로전》처럼 두꺼비가 범으로 가장한 삶을 法으로 다스리는 장면, 범과 두꺼비의 대결장면도 있다. 그뿐 아니라 《섬로장전》에서 쥐들이 婚姻問題를 둘러싸고 다투는 것을 두꺼비가 公正하게 판결한 內容과 범의 행위를 정확하게 판결하는 이야기를 《옥포동기완록》에서는 등장 인물을 바꾸는가 事件들을 좀 변경시켰고 이밖에도 《토끼전》의 基本事件, 민화 《징계받은 호랑이》, 여우가 범의 위세를 빌린 이야기, 《섬로장전》에서 두꺼비가 불교의 몽매성과 허황성을 포로했다는 식의 세부가 기본사건 또는 이야기의 한 장면으로 삽입되어 있다. 그리고 옥포동이라는 고장 이름은 《두껍전》, 《록처사연회》, 《로삼삼좌기》, 《섬로장전》, 《섬로전》 등에도 나온다. 그러므로 이 作品은 17-18세기에 쓰여진 《두껍전》과 그 異本들이 나온 이후 시기인 18세기말-19세기에 창작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同上書, p.92)

《왕제홍전》은 18-19세기에 유행되던 《정수정전》류의 공안소설과 《홍계월전》류의 군담소설의 영향을 받아 創作되었다고 主張한다. 아직까지 原著는 出版되지 않았고 《古典小說解題》에서 줄거리와 그 사상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있는 程度이다. 서지학적인 소개도 한 두 마디 말로 끝내고 있다. “《왕제홍전》의 創作年代와 作家는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그 內容으로 보아 군담소설이 왕성하게 유행하던 18-19세기에 創作된 것으로 추정된다. 붓으로 쓰여진 선장본으로 인민대학습당에 보존되어 있는 이 책은 66장 132쪽으로 전한다.”(同上書(하), p.171) 서지학적인 고증이 가장 잘된 작품은 《황백호전》이며 신빙성도 가장 높다. “《황백호전》에 대하여 선행한 時期에 소개한 옛 文獻資料는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서지학적 소개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소설책 자체를 가지고 進行하려고 한다. 《황백호전》은 인민대학습당에 보존되어 있는 한책 밖에 없는 희귀 도서이다. 책의 크기와 모양은 세로길이 19.7센티미터 가로길이 20.2센티미터의 네모꼴로 두어 있으며 종이는 흰색 조선종이다. 책을 맨 形式은 책의 오른편 가장자리 쪽에 세로 方向으로 구멍을 뚫고 두오리실로 끈 가는 끈을 꿰어서 엮은 선장 제본이며 그안의 內容을 이루는 글도 붓글씨로 되어 있다. 책의 장수는 本文을 적은 종이 63장과 앞뒤표지, 그리고 속지 등 모두 합하여

66장이다. 앞표지 정면과 속지 앞면에는 다 같이 《황백호전지단》이라고 漢字로 썼으나 本文이 시작되는 첫장 첫행에는우리 글자로 《황백호전》이라고 하였다. 本文은 모두 125면 즉 62장반에 記錄되어 있으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쓴 글자들의 매개장의 앞뒤면을 채우고 있다. 글은 한면에 10행씩 한행에 15자씩 쓴 것이 제일 많은데 총 합하여 1244행에 2만 108자이다. 글씨는 두 사람의 필체로 섞여졌다. 앞부분과 뒷부분의 많은 지면은 비교적 무난한 필체로 되어 있으나 가운데 14장은 붓글씨를 익히는 사람이 쓴 것 같은 印象을 주는 네모박이 서툰 글씨로 되어 있다. 책에는 또한 이 作品이 필사된 時期와 고장, 그리고 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밝히고 ‘...계축 정월 십칠일 시필’이라고 쓴 글과 같은 해 ‘이월 년팔일 충’이라는 記錄이 있다. 이 記錄들은 지금 전해지고 있는 《황백호전》이 1913년 1월 17일에 쓰기 시작하여 그해 2월 28일에 끝마친 필사글이라는 것을 전해준다. 또한 이 책에는 ‘경기도 개성군 북면 이소리’에 사는 ‘류○경’이라는 이름과 ‘책주 류○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권택수, 古典小說 <황백호전>에 대한 考察, 《조선고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년, p.292-p.293) 著者は 이렇게 상세하고 고증을 하면서 문체, 서두에서의 해석, 작자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 作品이 1913년 以前에 이미 創作되었고 늦어도 19세기에는 널리 보급되고 있었던 作品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小說이 한반도의 中部 以北 地方에서 創作되고 또 그곳에서 많이 읽힌 作品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이처럼 가치있는 小說作品이 最近에 와서야 나타났다는 事實은 지금까지 많은 研究者들이 中部 以北 地方의 作品들에 관심을 거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황백호전》의 발견은 中部 以北 地方의 作品들을 전면적으로 발굴, 조사하는 것이 中世小說史를 획기적으로 새롭게 서술하는데서 얼마나 重要하고 절실한 問題인가 하는 것을 말해 준다. 우리는 《황백호전》에 대한 서지학적 考察을 통하여 이 小說作品이 1913년보다 훨씬 以前時期 즉 늦어도 19세기에는 널리 보급되고 있었던 作品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권택수, 古典小說 <황백호전>에 대한 고찰, 《조선고전문학연구》(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년, p.294) 北韓에서는 이례적으로 서지학적 考察을 詳細하게 進行한 作品이다. 물론 뒤부분에 가서는 觀례대로 內容分析을 틀에 맞춰 進行하고 있다.

위에서 北韓에서 새롭게 발굴했다거나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다는 몇 편의 古典小說들에 대해 그들의 見解를 살펴 보았다. 北韓에서는 지금 어떤 學者들은 모두 整理되어 있는 古典小說 作品數가 500여종이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아직 學界에 알려져 있지 않았거나 이름만 알려져 있던 200여종에 달하는 古典小說들이 새로 발굴, 調査되었으며 500여종에 달하는 古典小說들의 內容이 기본적으로 掌握되었다. 그 가운데는 가치 있는 短篇小說들로부터 세계গুল지의 가장 큰 분량의 長篇小說들도 들어 있다.”(<古典小說解

題>에 대하여, 《古典小說해제》(1, 文藝出版社, 1988년, p.5) 그후에도 계속 발굴되었다고 하니 北韓에는 대체적으로 550여종에 달하는 古典小說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겠다. 南韓의 學者들은 대체적으로 이미 整理해 낸 古典小說 作品數가 대략 850종이나 900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筆者가 調査한 바에 依하면 現在까지 알려진 古典小說의 총목은 850여종에 이른다. 물론 이 숫자는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각개의 作品만을 헤아린 것이고, 지금까지 小說 研究者들이 小說作品으로 거론한 바 있는 古전 및 傳 作品, 문헌설화 作品 일부, 그리고 번역소설까지를 망라한 것이다. 앞으로 새로 발굴되는 新作品들을 추가한다면 우리 古典小說의 총자산은 대략 900여종에 달하는 셈이다.”(曹喜雄, 北韓所在 古典小說 書目檢討, 《韓國古典小說과 敘事文學》, 集文堂, 1998년, p.69) 이 관점으로 본다면 北韓에서 정리해 낸 古典小說의 수는 南韓에 비해 꽤 적은 편이다. 그리고 北韓과 南韓이 古典小說의 종결시기를 확정하는데서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이 달라진다. 南韓에서는 갑오경장을 분수령으로 古典小說로, 北韓에서는 이인직의 《혈의 루》가 창작되기까지를 古典小說의 종결로 보고 있다. 《혈의 루》가 1906년에 創作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도 시간차가 10여년은 실히 된다. 단적인 예로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 北韓의 1957년의 資料에 《채봉감별곡》은 1900년에 創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小説은 南韓의 見解대로 한다고 하면 古典小說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러저러한 見解의 차이가 있고 정밀하게 재검토해 볼 여지도 많지만 아무튼 北韓에는 아직 南韓에서 발굴되지 않았거나 또는 그들이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는 古典小說들이 상당수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이런 小説들에 대해 폭넓은 研究를 進行하는 것은 꽤 意義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北韓의 古典小說史 研究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 北韓에는 이때까지 모두 4종의 古典小說 文學史가 출간됐다. 첫째로는 金台俊의 《增補朝鮮小說史》이다. 學藝社에서 朝鮮文庫 形式으로 1939년에 발행한, 임화가 序文을 쓴 《增補朝鮮小說史》를 翻印해서 50년대에 발행했다. 이 小説史는 韓國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小説史이기에 더 언급을 하지 않겠다. 두번째로는 金春澤의 《朝鮮古典小說史研究》이다. 이 著書는 韓國에서 책명을 바꾸어(《우리 나라 고전소설사 연구》) 이미 出版까지 하였다. 세번째로는 《조선소설사》(조선문학과용,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1989년)이다. 기실 이 著書에서 古典小說 部分은 절반가량 분량을 차지 한다. 김춘택교수와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은종섭교수가 연합으로 쓴 것인데 內容은 대체적으로 《朝鮮古典小說史研究》를 줄여서 쓴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다. “《朝鮮小說史》는 學生들이 文學發展의 매 時期를 代表하는 重要 作品들과 作家들에 대한 인식을 일정하게 가지고 研究, 學習하게 되는 條件에서 形態發展을 위주로 하여 서술

하였다. 또한 전공반 學生들이 《朝鮮古典小說史研究》, 《朝鮮近代 및 해방전 現代小說史研究》(1, 2)를 참고서로 이용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小說文學의 遺産과 그 發展過程에 대한 서술을 간략하였다는 것을 일러둔다.”(《조선소설사》(조선문화과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9년, p.5) 이런 견지에서 놓고 볼 때 《조선소설사》도 南韓에서 익숙히 알고 있는 著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韓國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古典小說 文學史는 윤기덕의 《文學新聞》에 10회에 걸쳐 發表한 《小說의 歷史를 더듬어》이다. 먼저 그 發表된 일시를 알아 보기로 하자.

- 제1회: 1966년 11월 1일
- 제2회: 1966년 11월 18일
- 제3회: ?
- 제4회: 1966년 12월 24일
- 제5회: 1967년 1월 13일
- 제6회: 1967년 2월 14일
- 제7회: 1967년 2월 21일
- 제8회: 1967년 3월 7일
- 제9회: 1967년 3월 14일
- 제10회: 1967년 4월 4일

이 小說史는 비교적 간명하게 기술되었지만 여러 면에서 독특한 見解도 提出하였다. 예하면 古典小說의 發生時期 問題에 대해서 擬人傳記體 小說을 古典小說의 始祖로 보았다. “《하찮은 이야기》-小說發展의 다음 단계는 12세기말-13세기초(고려시기)를 전후하여 發展한 擬人傳記體 小說과 稗說文學에서 보게 된다. …… 그런데 다만 이 時期 나온 擬人傳記體 小說과 稗說文學만은 이들과 區別되며 小說發展에서 새로운 意義를 가졌다. 擬人傳記體 小說이란 어떤 動物이나 식물 또는 물건들을 사람처럼 小說에 내세워 傳記文學과 같이 그의 行狀을 써서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教훈을 주는 小說이다. 동식물을 사람처럼 내세워 이야기를 꾸민 것은 물론 이때가 처음이 아니다. 예하면 삼국시대 金春秋가 고구려의 힘을 빌리려고 그곳에 갔다가 도리어 잡힌 몸이 되었을 때 고구려의 한 신하가 들려준 《거북이와 토끼》, 설총이 新羅 31대 신문왕에게 부화타락 하지 말아야 한다는 忠告를 주기 위하여 한 할미꽃 할아버지와 장미꽃 女王에 대한 이야기(花王戒) 등이 이미 있었다. 그런데 12-13세기에 오면서 이 선행한 擬人說話와 個人傳記의 전통을 아울러 계승한 새 形式이 나왔으니 그것이 곧 擬人傳記體 小說이라 하는 것이다. 이 形式을 처음 쓴 作家가 林權인데 《국

순전》과 《공방전》을 그가 지었고 李奎報는 《국선생전》과 《청강사자현부전》을, 이운 보는 《무장공자전》, 이곡은 《죽부인전》, 석식영암은 《정시자전》, 이침은 《저생전》을 지었다. 《공방전》은 엽전을, 《국선생전》과 《무장공자전》은 술을, 《청강사자현부전》은 거북이를, 《죽부인전》은 참대를, 《정시자전》은 올챙이를, 《저생전》은 종이를 擬人化하였다. 이 擬人傳記體 小說이 小說發展에서 가지는 意義는 첫째로, 실제 있지 않은 事實과 人物을 있는 事實과 있는 人物처럼 묘사하며 어느 한 生活의 形式으로 묘사함으로써 사실주의정신에 立脚한 藝術的 虛構의 發展에서 一步 前進을 가져 왔다. 다음은 사회적 問題와 人間問題가 以前보다 더 직접적으로 (아직 擬人化의 形式의 제약은 있으나) 作品에 提起되고 그것에 對답을 주려고 志向하였는데 意義가 있다. 이렇게 하여 擬人傳記體 小說들은 선행한 우화체 作品과 전기의 전통을 계승하여 小說-《하찮은 이야기》를 새로운 단계에로 發展시키었다.”(윤기덕, 《小說의 歷史를 더듬어》(1), 《文藝新聞》, 1966년, 11월 1일) 또 이 文學史는 17세기 文學을 愛國主義, 反侵略으로 규정지으면서 大서 特淸한 特點도 가지고 있다.

위에서 筆者는 ings하게나마 北韓의 古典小說 集, 발굴 尙况에 對해 살펴보았으며 南韓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作品들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를 進行了다. 喜喜雄教授의 研究에 依하면 南韓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古典小說이 大략 35종이나 40종으로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이 면에서 계속 研究를 추진한다면 古典小說 研究영역에서 많은 새로운 成果들이 속출하리라고 기대된다.

古典小說史 研究面에서는 地面의 制限으로 小說史 몇 개만 살펴 보는 것으로 끝을 마쳤다. 研究面에서는 많은 저서들과 논문이 발표되었기에 여기에서 일일이 다룰 수 없다. 最近에는 北韓에서의 古典小說 研究가 새로운 動向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古典小說의 發生時期를 6세기로 잡으면 高구려의 《溫達傳》을 古典小說의 효시로 보고 있다. 또 小說에서 는 이야기가 가장 重要한 구성 요소라고 인정하면서 稗說作品에도 많은 훌륭한 小說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主張한다. 아무튼 學者들의 끈질긴 努力과 엄격한 탐구정신은 南北의 人위적인 장벽을 뛰어 넘어 우리 民族의 共同遺産인 古典小說 영역에서 풍성한 成果를 거두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